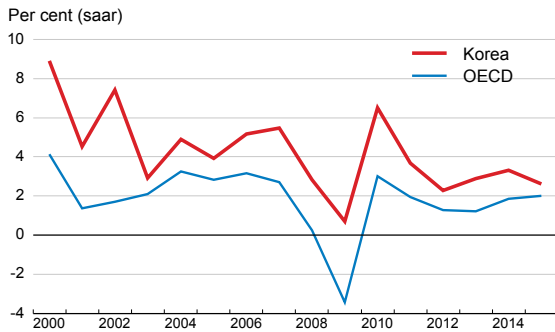


주요 내용 요약

한국은 성장률 둔화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하락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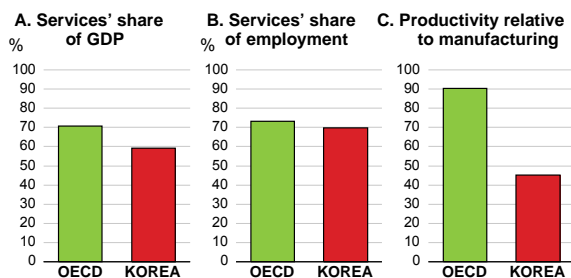


출처: OECD Analytical Database.

2011~2015 년 중 경제성장률은 2%로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를 하회하였다. 수출 증가율은 부진했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내수 부진과 유가 하락, 과도기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GDP 의 거의 8%까지 확대되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준까지 인하되면서, 주택투자가 활발해진 것은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높은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에 체계적인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2015 년의 재정부양책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재정 수지가 흑자고 정부의 순 채권자 지위가 유지되는 등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큰 격차로 인해 생산성이 낮다.

한국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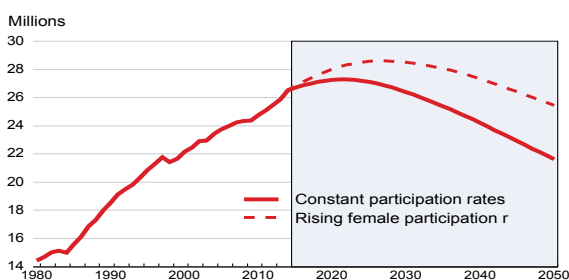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OECD STI Database.

2011~15 년 중 노동생산성(근로자 1 인당 생산량) 증가율은 약 1%로 하락했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미만이다. 중소기업 정책이 소규모 기업들의 생산성 보다는 생존율을 높이고 있어서 중소기업 중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벤처 캐피탈 투자는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을 확산시키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상품시장 규제는 OECD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다. 혁신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높은 R&D 투자의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4 년에 도입된 경제혁신 3 개년 계획을 통해서 규제 개혁과 R&D 투자, 그리고 벤처 생태계 조성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시장 문제로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초래되고 고용이 위축된다.

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된다면 노동력이 급감할 것이다



출처: 통계청; OECD 자체 추산.

노동시장이 정규직 근로자와 시간당 소득이 정규직 노동자의 62%에 불과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화되면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고용됨에 따라 여성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 고용률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나이든 근로자들은 평균 53 세에 직장에서 밀려나 질이 낮은 일자리와 자영업 쪽으로 이직한다. 짧은 근로 기간은 높은 노인 빈곤율의 한 원인이다. 고용률은 부분적으로는 정책적 노력이지만 여성 고용률의 증가와 노인 빈곤율의 하락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